

답선뉴가리



[해제]

<답선유가라>는 전적형태의 필사본으로 기행의 성격을 띤 규방가사이다. 줄글형태로 필사되어 있으며, 모두 17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표지에 <후여가라>라 쓰여 있는데, 이는 ‘훈여(訓女)’, 곧 여성을 훈계한다는 뜻으로 <춘유록>, <선유가라>, <옥단춘전이라> 등 여러 작품이 함께 실려 있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작품은 여성의 신세 한탄으로 시작한다. 여성의 사회적 제약 탓에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남자와 비교하고 있다. 봄날의 경치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작품 제목에서 ‘선유(仙遊)’는 경치 좋은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이를 ‘답(踏)’하여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기행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봄날의 흥취를 옛고사를 인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추상적 경험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봄날의 경치를 즐기지 못하고 문헌으로만 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간접적 경험을 즐길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한계를 적절히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원문]

만이놀고 만이자식 시가의 가기되면
 마음뒤로 잠못자고 놀여가 잇실손가
 세승사 가소롭다 여지진역 피든숫천
 오날앗참 닥화되고 무정한 저시월은
 온민홍안 다죽난다 실푸다 동유드라
 세간사 가이업다 어제오날 노든형임
 귀손긋이 되야셔라
 실푸다 우리인칭 사라션조 엇지
 죽음에 노소인나 희포근심 다발이고
 활발하기 놀릇세 쉼초난 열연녹이요
 왕손은 귀불기라 천스만스 다발이고
 추우간남 놀로가세 세월이 무정할스
 친하고 빗업기난 봉우박기 쏘인난가
 일승씩어 싹을진듯 굵머잇기 한티모여
 세승스 슬화하고 실음업시 세월을 보니다가
 호칭의 남자되여 청여을 자바타고
 한양성중 들어가서 우기성군 용승지성
 만호중안 골목골목 구경하고 조선팔도
 명성지의 경쳐구경 다히보고 외국으로
 유남하야 우등칭이 되여라

답선뉴가리

가솔옵다 여즈드라 활발한 남즈들을
 여자엇지 평논할가 우습다 여자드라
 여즈가 되엇스면 여즈유흥 다할손가

침선방적 하난일을 죽잔전은 못면하고
물이고 방아씩케 밥하고 쌀니하고
하로잇틀 한달두달 한히두히 허다한
만은날예 아이임 나시시디 디하난 책임
니괴흔디 잇단말고
헛부다 여자드라 우리평심 스염함을
디강디강 들러보소 심세짜지 성경현전
착실이 하엿드가 심오세면 상관하고
티평성디 조흔씨면 스물유취 문조유와
이릭두시 강학셔전 반보달이 늦기하여
술녕술녕 가난말게 만부담 실적하고
부모임게 빅스스후 남평선 급히드려
일광을 기리우고 노수진경 널은질로
항양철이 올라가서 일필히지 선공하여
주셔참봉 진조곱지 어사옥동 하오면은
인간의 조흔영화 이밧게 다시업고
그것저것 다바리고 유학을 위명하면
광딕한 조흔집예 각장중판 소리반자
잇씩보고 총밧다지며 살미숫찬 찬경붓쳐
분벽스창 조흔방의 능나금슈 조흔의복
철철이 갈라임고 송마독 을시월을
뵈니으이 더워도 걱정업고 쉼워도 근심업다
가솔업다 여자드라 우리평심 엇든하고
이니말삼 드러보소 선유도 하자하면
노난명일 엇들손가 칠월볼음 빅중날과
팔월볼음 쉼석날예 빅을타고 놓고보면
직미가 절노나지 유두시가 그리조와
그결사 놀이라고 엄식 도고이제 중만하늬
얼녕먹난 사람갓치 수전인지 목전인지
가룬지 지름인지 비어비어 어더드가
적인지 인절인지 남의손니 솜조한이
엇지그리 온전할가
자서이 살피보이 여자된일 불상하다
구육짓친다 갓근마는 어의들은 철은하고
우리들은 일은한이 동기친척 심각한이
불상코 갈런하드
어와 아히드라 우익인난 우리정의
그엇지 믿음하나 노름공논 하울적의

아직비야 올라비야 우리동무 수삼명이
빋노름 할러이이 움식빋쳐 하여주기
조흔말노 일너주면 아몰이 뇌고히도
풍족하기 씻기주지 우습다 여자드라
경쳐면 다경쳐며 놀음이면 득갓틀가
우리경쳐 빋놀음을 디강디강 들어보소
알람담고 숨수숨손 우리고향 모비로다
압흐로 마리중강 뒤을 만중봉은
혐함도 칭양업고 기이함도 무궁하다
기화요초난 씨씨로 찰난하고 낙낙중송은
스시중춘 봄이로다
강변의 슈영버들 천스만스 푸른중의
황금갓탄 꿋솔이난 양유스로 베을쓰고
벽계의 죽죽화난 천점만침 불근중의
호점이 춤을추고 원중의 외외녹죽
디남무난 킷설한풍 찬바람의 춘풍을 쉼엇스이
천고특절 이안인가 경쳐을 다말하면
약하고 열인간중 기절을 할겨스이
경쳐난 고스하고 우리선유 살피보라
천먹의 줄불넛코 창파의 낙화쉬여
낙화송이 가난티로 범범중유 날여갈제
셔로단가 중단풍월 절커절커 외는후의
각향풍악 다놀인다 필리젯티 횡금통슈
오동목판 겨문고와 셔양제조 기악금과
조선풍유 갓초초 자리로 비푼후의
솔이명창 이춘풍과 춤잘추난 송화삼이
일등기승 이상인을 압히다가 셔와넛코
중단맛차 화답하이 복옥청순 노든금슈
강변의 나러안즈 춤추다가 울음울고
온갓김싱 울며 풍악소리 화답하니
식쥬가의 음씩음씩 거만반지수 차이다가
밤참을 먹언후의 맛조흔 소쥬약쥬
육산포림 조흔음식 싯토록 먹은후예
풍악소리 요란하다
월식은 명난하고 야식은 충충한디
활말흔 조흔풍유 흥미가 시로나셔
모시에 관저중랑 상셔의 요전순전
중평의 조흔절귀 적벽부 동왕각을

체량한 음성으로 쌍쌍 우난소리
손청이 송응이라 청천의 발근달은
날을보고 반기난듯 물결은 고요하고
청풍은 왕늑한다
놀음도 재미있고 경처도 조흘시고
가소롭듯 여즈드라 우리풍화 들어보라
빈노름과 손천귀경 모도다 저발이고
달은소회 들어보라 흐다한 말은날에
놀기도 질이하다 동긴속 셔긴속은
집집마당 식쥬가요 일이가며 절이가도
곳곳마당 풍악이라
여자라 하난거슨 부동산의 달음업고
남즈난 동물이라 간곳마당 풍악잇고
돛처마당 술밤이라 가솔웁다 여즈드라
남즈의 하난일은 스시장춘 노름이라
무식한 여즈드런 츄츄로 들어보라
춘풍삼월 호시절은 시쥬풍월 주중하고
열음이면 각항노름 다하다가 금풍일석
소슬한이 낙하난 고목으로 갖치날고
추수난 천일식다 일반이라
만손초목 단풍식은 이손저손 단청하고
계승의 국화식은 호으로 춘풍 쉼여잇고
제비난 들어가고 기력기난 날라들제
옥누상창 발근달에 횡화초의 놀노가자
동제석달 설한풍의 원근의 출입안고
친척고구 한뒤모여 증기바둑 골핍판을
여게셔게 빌여놋코 세월을 보늑다가
쏘다시 봄이되면 이전뒤로 가솔웁다
여즈평심 오조하기 노든션유 스방통문
드도랏지 우습고 가련하다
우리풍유 엇더한가 그길스 노라짜고
혀여질씩 낙누하고 괴승하게 노든풍정
쏘다시 기약한다 남여간 평심고낙
평심은 일반이라 실푸고 헛부도다
이늑말삼 들어보소 무평갓탄 우리인심
세승스 잔관이라
빅승의 걸인시계 일년넌 줄드돌라
세월을 짓촉하늑 무심한 여즈드라

명연삼을 봄이 되거든 한티모여 노라보세
할말은 첩출하나 디강디강 이만

은화라

어와 가소롭다 남아평심 가소롭다
청춘수업 바라더이 빅두용이 되단말가
진중갓 쥬윙화난 화조가을 지은이라
요순싱디 다시만나 티평화조 존치한다
강구연월 노인들은 경양가을 화답한다
낙양싱동 도리화난 가지가지 솟치피여
인왕손의 뿌리박아 한강수 물을주어
스빅연의 본바람의 화쥬왕이 되단말고
시절은 뽕춘이라 동궁이 즉위시의
만조빅관 현 화항다 셔왕모 천연드로
우리춘궁 축수한다 춘당디의 좌괴하이
억조창싱 고무하드 요지연을 비설한이
만화빅조 드모엿드 말잘하난 의무식난
만시만시 호만시라 글잘하난 할임식난
군즈만연 축수한다 소리조흔 흥노식난

[현대역]

많이 놀고 많이 자세 시가102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잠못자고 놀 여가103 있을손가
 세상사 가소롭다 여기저기 피던 꽃은
 오늘 아침 낙화되고 무정한 저 세월은
 옥빈홍안104 다녹는다 슬프다 동류들아
 세간사 가이없다 어제오늘 놀던 형님
 귀산객105이 되어서라
 슬프다 우리인생 살아서도 어찌
 죽음에 노소있나 회포근심 다버리고
 활발하게 놀아보세 춘초는 연년록106이요
 왕손은 귀불귀107라 천사만사 다버리고
 추우간남 놀러가세 세월이 무정할사
 친하고 벗없기는 봉우밖에 또 있는가
 일상백어 싹을 진듯 굶어있기 한데 모여
 세상사 설화하고 시름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호생의 남자되어 청어를 잡아타고
 한양성중 들어가서 우리성군 용상지성
 만호장안 골목골목 구경하고 조선팔도
 명승지의 경치구경 다해보고 외국으로
 유남하여 우등생이 되어보자

답선유가리

가소롭다 여자들아 활발한 남자들은
 여자 어찌 평론할까 우습다 여자들아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유행 다할손가
 침선방적1 하는일을 죽기 전에 못면하고
 물이고 방아찍어 밥하고 빨래하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허다한
 많은 날에 아이임 낳았으되
 대하는 책임 누구한테 있단말고
 헛부다 여자들아 우리 평생 사념2함을
 대강대강 들어보소 십세까지 성경현전3
 착실히 하였다가 십오세면 상관4하고
 태평성대 좋은 때면 사문유취5 문자류와
 이백두시 강학서전 반보달이 늦게 하여
 술렁술렁 가난말게 만부담 실적하고
 부모님께 배사사후 남평선 급히 들어

일광을 가리우고 노수진경 넓은 길로
한양천리 올라가서 일필휘지6 선공하여
주서참봉 진자급지 어사옥당 하오면은
인간의 좋은 영화 이밖에 다시 없고
그것저것 다버리고 유학을 위명하면
광대한 좋은 집에 각장장판 소리반자
이때 보고 창밀다지며 살미사찬 찬경불여
분벽사창7 좋은 방의 능라금수8 좋은 의복
철철이 갈아입고 상마독 을시월을 보내니
더워도 걱정없고 추워도 근심없다
가소롭다 여자들아 우리평생 어떠하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선유9도 하자하면
노는 명일 얻을손가 칠월보름 백중날10과
팔월보름 추석날에 배를 타고 놓고 보면
재미가 절로 나지 유두11때가 그리 좋아
그 결사 놀이라고 음식도 이제 장만하네
얼른 먹는 사람같이 수전인지 목전인지
가루인지 기름인지 비어비어 얻어다가
적인지 인절미인지 남의 손에 꿈자하니
어찌 그리 온전할까
자세히 살펴보니 여자된 일 불쌍하다
골육지친12 다같건마는 어른들은 철은하고
우리들의 이런 한이 동기친척 생각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어와 아이들아 우애있는 우리 정에
그 어찌 미물하나 놀음공론 하올 적에
아재비야 오라비야 우리동무 수삼명이
벳놀음 하려하니 음식받쳐 하여주게
좋은 말로 알려주면 아무리 내고해도
풍족하기 씻겨주기 우습다 여자들아
경처13면 다경처며 놀음이면 다갈을까
우리 경처 벳놀음을 대강대강 들어보소
아름답고 삼수삼산 우리고향 모비로다
앞으로 만리장강 뒤를 만장봉은
험함도 측량14없고 기이함도 무궁하다
기화요초15는 때때로 찬란하고 낙락장송16은
사시장춘17 봄이로다
강변의 수양버들 천사만사 푸른 중에

황금같은 께꼬리는 양유사로 베를 짜고
벽계의 작작화는 천점만점 붉은 중에
호점18이 춤을 추고 원중의 외외녹죽
대나무는 백설한풍 찬바람에 춘풍을 뒀으니
천고특절 이아닌가 경처를 다말하면
약하고 얼린 간장19 기절을 할 것이니
경처는 고사하고 우리 선유 살펴보라
천벽에 줄을 놓고 창파20에 낙화뛰어
낙화송이 가는대로 범범종류21 내려갈 제
서로 단가 장단풍월 절켜절켜 외운 후에
각향풍악 다놀인다 피리젓대 해금통소
오동목판 거문고와 서양제조 가야금과
조선풍류 갖추어 자리로 베풀 후에
소리명창 이춘풍과 춤 잘추는 송화삼이
일등기생 이상인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장단맞춰 화답하니 백옥청산 놀던 금수
강변에 내려앉아 춤추다가 울음 울고
온갖 짐승 울며 풍악소리 화답하네
색주가22의 음식음식 거만반지수 차리다가
밤참을 먹은 후에 맛좋은 소주약주
육산포림23 좋은 음식 싫도록 먹은 후에
풍악소리 요란하다
월색은 명란24하고 야색은 창창25한데
활발한 좋은 풍류 흥미가 새로 나서
모시26에 관저27자랑 상서28의 요전순전29
장평의 좋은 절구 적벽부 등왕각을
처량한 음성으로 쌍쌍 우는 소리
산천이 상응30이라 청천의 밝은 달은
나를 보고 반기는듯 물결은 고요하고
청풍은 왕래한다
놀음도 재미있고 경처도 좋을시고
가소롭다 여자들아 우리풍화 들어보라
뱃놀음과 산천구경 모두다 저버리고
다른 소회31 들어보라 허다한 많은 날에
놀기도 지리하다 동가식 서가속32은
집집마다 색주가요 이리 가며 저리 가도
곳곳마다 풍악이라
여자라 하는 것은 부동산33에 다름없고

남자는 동물이라 간곳마다 풍악있고
도처마다 술밤이라 가소롭다 여자들아
남자의 하는 일은 사시장춘 놀음이라
무식한 여자들은 차차로 들어보라
춘풍삼월 호시절은 시주풍월 주장하고
여름이면 각항놀음 다하다가 금풍일석
소슬하니 낙하는 고목으로 같이 날고
추수는 천일색다 일반이라
만산초목 단풍색은 이산저산 단청하고
계상의 국화색은 호으로 춘풍 뛰어있고
제비는 들어가고 기러기는 날아들제
옥루상창 밝은 달에 행화초에 놀러가자
동지선달 설한풍에 원근에 출입않고
친척고구 한데모여 장기바둑 골패판을
여기서게 빌어놓고 세월을 보내다가
또다시 봄이 되면 이전대로 가소롭다
여자평생 오조하기 놀던 선유 사방통문
다도라지 우습고 가련하다
우리 풍류 어떠한가 그길사 놀았다고
헤어질 때 낙루34하고 괴상하게 놀던 풍정
또다시 기억한다 남녀간 평생고락
평생은 일반이라 슬프고 헛부도다
이내 말씀 들어보소 부평같은 우리인생
세상사 잠깐이라
백상의 걸린 시계 일년년 잘도 돌아
세월을 재촉하네 무심한 여자들아
명년삼월 봄이 되거든 한데모여 놀아보세
할 말은 첩출35하나 대강대강 이만 하리라

[각주]

- 102) 시가(媿家) : 시댁.
- 103) 여가(餘暇) : 틈.여유.
- 104) 옥빈홍안(玉鬢紅顏) :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 105) 귀산객(歸山客) : 산으로 돌아간 손님.곧 '죽음'을 비유.
- 106) 춘초연년록(春草年年綠) : 봄풀은 해마다 푸르름.
- 107) 왕손귀불귀(王孫歸不歸) : 왕손은 다시 돌아오지 못함.
- 1) 침선방적(針線紡績) : 길쌈.
- 2) 사념(思念) : 근심하고 염려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생각.
- 3) 성경현전(聖經賢傳) : 유학의 성현(聖賢)이 남긴 글.성인(聖人)의 글을 '경(經)'이라고 하고, 현인(賢人)의 글을 '전(傳)'이라고 함.
- 4) 상관(上冠) : 머리를 올림.곧 약관(弱冠)의 나이를 말함.
- 5) 사문유취(事文類聚) : 중국에서, 고금(古今)의 여러 책에서 요어(要語), 사실(事實), 시문(詩文)을 뽑아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체재에 따라 종류별로 모아 엮은 책.
- 6) 일필휘지(一筆揮之) :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 씬.
- 7) 분벽사창(粉壁紗窓) :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을 이르는 말.
- 8) 능라금수(綾羅錦繡) : 명주실로 짠 피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9) 선유(仙遊) : 선경(仙境)에서 놀.
- 10) 백중(百中)날 : 승려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이날 일반인까지 참석하여 우란분회를 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함.근래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련하여 먹고 놀.
- 11) 유두(流頭)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유월 보름날을 말함.신라 때부터 유래한 것으로, 나쁜 일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음.
- 12) 골육지친(骨肉之親) : 부모형제 등의 육친(肉親).
- 13) 경처(景處) : 경치가 뛰어난 곳.
- 14) 측량(測量) : 생각하여 헤아림.
- 15) 기화요처(琪花瑤草) :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 16) 낙락장송(落落長松) :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17) 사시장춘(四時長春) : 어느 때나 늘 봄과 같음.
- 18) 호접(胡蝶) : 나비.
- 19) 간장(肝腸) : 간과 창자.'애'나 '마음'을 비유.
- 20) 창파(滄波) :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 21) 범범중류(泛泛中流) : 강 한 가운데에 동동 떠다님.
- 22) 색주가(色酒家) : 젊은 여자를 두고 술과 함께 몸을 파는 집.
- 23) 육산포림(肉山脯林) : 고기가 산을 이루고 포(脯)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몹시 사치스러운 잔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4) 명란(明亂) : 어지럽게 비침.
- 25) 창창(蒼蒼) : 어둑어둑 함.
- 26) 모시(毛詩) : 『시경(詩經)』을 달리 부르는 말.
- 27) 관저(關雎) : 『시경(詩經)』의 부분으로 후비의 덕을 노래함.
- 28) 상서(尙書) : 『서경(書經)』을 달리 부르는 말.
- 29) 요전순전(堯典舜典) : 『서경(書經)』의 부분으로 요임금과 순임금의 덕을 노래함.
- 30) 상응(相應) : 서로 어울림.
- 31) 소회(所懷) :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회포
- 32)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뜻으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을 이르는 말.
- 33) 부동산(不動山) : 움직이지 않는 산.곧 여자의 운명은 변할 수 없다는 뜻.
- 34) 낙루(落淚) : 눈물을 흘림.
- 35) 첩출(疊出) : 같은 사물이 거듭 나옴.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